

도를 선생이 주해한 동경대전을 읽고

동학은 코로나 극복과 21세기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대적 요청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마스크를 벗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도올 선생의 <동경대전> 역주(譯註)에서 찾아본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수운의 '동경대전'이 세상으로 나올 때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도올 선생에 의해서 '동경대전' 해설서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조진을 보이는 예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십이제국(十二諸國)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 개벽(開闢) 아날런가 태평성세(太平聖世) 다시 정(定)해 국태민안(國泰民安) 할 것이나 개탄지심(慨歎之心) 두지 말고 차차차차 지냈어라 하원갑(下元甲) 지내거든 삼원갑(上元甲) 호시절(好時節)에 만고(萬古) 없는 무극대도(無極大道)이 세상에 날 것이나...”(『용담유사』「夢中老少問答歌」)

조선왕조 500년이 동학으로 마무리

아담인에게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고 유대인에게는 '모세오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이러한 경전에 버금가는 경전이 아니라 으뜸의 경전이 <동경대전>이라고 도올 선생은 강조한다. <동경대전>이란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가 지은 동학의 경전이며, 동학의 제2대 교조 해월 최시형(崔時亨)에 의해서 경진년(1880)에 초판본 <동경대전>이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감동리에서 한 달(5월 9일)에 시작하여 6월 14일 목화자본으로 발간) 만에 후다닥 간행되었다.

이듬해(1881년)부터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자(『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신사년 '시세추는歲秋 대역大疫'이라고 기록함), 이미 민간에서는 동학에 인도하면 괴질이 걸리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에 동학도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경북 상주 전성촌에 도피처로 살림을 꾸린 해월 최시형은 1886년 4월에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금년에는 악질(콜레라)이 크게 유행하리니 도인들은 기도에 힘쓰는 동시에 특히 청결을 주로 하라.” 하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묵은 음식은 다시 끓여 먹어라. 집을 아무 데나 뻐지 말라. 만일 길이거든 땅에 묻고 가라. 대변을 본 뒤에 길이가거든 땅에 묻고 가라. 흐린 물을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 집 안을 하루 두 번씩 청결히 닦으라.”

당해 6월에 과연 괴질(콜레라)이 크게 유행하여, 수만 명이 죽었고 서울에서만 만 명 넘는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그 당시 해월의 당부대로 기도와 위생수칙을 지킨 동학도는 무사하였을 뿐 아니라, 해월 신

사(神師)께서 사시는 마을 40여 호에도 병에 걸린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충청, 경기, 전라, 경상 등에서 소문을 듣고 신사를 찾아 도에 드는 자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동학의 사상체계를 잘 담은 대표적인 경전으로 사대부와 지식층을 위해서 한문체로 쓰인 '동경대전'과 일반 민중 특히 부녀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지어진 '용담유사'를 꼽는다. 이들 중 '동경대전'이 도올 김용옥 선생을 만나 이재야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대선생주문집'과 동경대전 '경진조판본'에 대한 번역·해설서 곧 도올판 <동경대전 1·2>이다.

“동학을 해설하는 자들이 유학의 넓고 큰 뜻, 그 도덕성의 배후에 있는 형이상학적 가치체계와 고전의 철학적 배경을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성誠·경敬·신信' 운운하는 것을 나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운 본인과, 수운을 이해하고 해설한다고 하는 학인들 사이에, 너무도 경지의 차이가 크고 언어의 장벽이 높다. - 중략 - 수운의 사상이야말로 조선유학이 우리 민중의 가슴에 심어놓은 건강한 가치관의 총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문화적 유산, 그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 500년이 동학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심원한 행운인지를 나는 되짚고 되짚게 된다.” - 도올의 『동경대전』, pp. 93-94 인용

『을묘천서(乙卯天書)』는 '천주실의'보다 더 오래된 '신편서축국천주실록'

수운의 궁극적 관심은 '인간해방'이었다. 인간을 자기가 창조한 조직 속에 '가두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가 포덕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것이 부인을 입도시킨 것이요(박씨 부인은 자진 입도했다), 그가 데리고 있던 두 여노비(女婢)를 해방시켜 하나는 첫째 며느리로 삼았고 하나는 수양딸로 삼은 일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이었다.

이렇게 포덕을 시작하기 5년 전에 있었던 『을묘천서(乙卯天書)』와 관련된 이야기로 최제우는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나이 30세를 전후하여 경주 집사람과 함께 울산으로 이주하여 속유곡동이라는 곳에 초가집을 한 채 마련하고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을묘년(1855) 어느 봄날 최제우가 즐기고 있는데 한 낫신 승려(禪師)가 찾



도올 선생은 동학정신과 결부하여 '인간의 참다운 평등과 조화는 오로지 황제적 인신(神)이 사라지고, 모든 인간이 하늘님이 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아와 '금강산 유점사의 중인데 백일치성을 끝내는 날, 탑 아래서 잠들었다가 깨어나니 탑 위에 한 권의 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펼쳐보니 세상에서 보기 드문 좀 희한한 책이었습니다. 소승은 이 책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 보통 박사한 분이 아니라고 우러러보는 소문을 듣게 되어 다짜고짜 책을 가슴에 품은 채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생원께서는 이 책을 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다.

수운 선생이 그 책을 펼쳐보니 유학의 책이라고 할 수 없고, 불가(佛家)의 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책이었다. 도무지 문장의 이치가 온당치를 앎아 그 진의를 풀어 깨닫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이었다.

스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제가 사할 여유를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그간에 자세히 살펴보시던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러갔다. 사를 뒤 최제우는 책의 뜻을 일러주었다. 스님은 “부디 이 책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한 뒤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不見其處). 깊이 살펴 이치를 풀어 보았더니(探求透理) 기도(祈禱)를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을묘천서를 신비로운 책으로 간주하여 신화에 안주하는 것보다 동학사상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살해하는 책으로 탐색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을묘천서』는 루지예리가 1584년에 저술한 『신편서축국천주실록(新編西竺國天主實錄)』에 분명하다. 『신편서축국천주실록』에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의 신(Deus)을 천주(天主)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게다가 승(僧), 천축(天竺), 사(寺), 출가(出家) 등 불교 용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예수회 소속의 수도사 루지예리는 승복을 걸치고 선교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여가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수운 대신사가 받은 『을묘천서』가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실의』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에 대해 반증하는 논단 발표와 논의로 천도교 교구장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자 고치려고 부적을 써 봤더니,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자는 낫지 않아

을묘천서 사건을 겪은 이후 경진년(1860)까지 5년 동안 수운은 이 우주의 주재자 하늘님(하나님=천주天主)을 직접 만나고 싶은 열망이 식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을묘천서에서 깨달은 기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여, 마침내 경진년(1860) 4월 5일에 상제(上帝)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세상 사람들이 날 상제라고 부르는데 너는 그 상제를 모르느냐?

“然則西道以教人乎”; 그렇다면 기독교의 교리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리이까?

“不然”; 그렇지 아니하다!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다른 형상은 궁궁이다.

“受我此符 濟人疾病”; 나의 이 영부를 받아 질병에 시달리는 세상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어라.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 부적을 받아가지고 써서 먹어보았더니 몸이 좋아지고 병이 나아졌다. 그래서 탄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이 방법을 써 봤더니, 어떤 자는 낫고 어떤 자는 안 나왔다. 그 까닭을 살펴보았더니 지금이 하늘님을 위하는 사람은 번번이 병이 나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다. 결국 낫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님의 영부(靈符)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誠)과 경(敬)에 달린 걸 깨달았다.

동학은 성인(公丈·맹자)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수심정기(修身正氣)는 수운이 새로이 창안하여 무극대도의 큰 덕목으로 삼았다. 도올 선생은 수심정기에서 '심(心)'은 천주께서 수운에게 심은 '하늘의 마음'이라고 단언한다. 오늘날 천도교에서는 수심정기의 수련을 통하여 시천주(侍天主)할 수 있다고 한다. 시천주가 곧 하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니 하늘님을 내 속에 모셔 신인합일이 이루어진 자는 어떤 병마도 물리칠 수 있는 면역체계를 형성한 몸(氣) 자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운의 수심정기나 하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동일한 사상임을 알 수 있다.*

백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3>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의인”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의인이요, 재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간자가 의인이요, 재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방의 세계를 뒤집어엮고 신 천신지를 건설하는 주인공이 이간자다.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므로 나라는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위주로 살게 되어, 집에 있으나 직장에 가나 하나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몸도 저 몸도 하나님의 몸이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 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가 의인이 되고 이간자가 되는 것이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발행인 칼럼

코로나 시대 신앙을 지키는 법

지금은 신앙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이다. 델타 변이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정교 예배를 안채 다시 봐야 할지 모르는 시점이다. 계속해서 2000명 전후의 숫자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감처럼 코로나19도 인류와 함께할 거라고 예측하는 실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아래에서는 비대면예배로 진행되다 보니까 매일 제단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 있다.

예배 못 보는 여건 보완 조치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믿는 신앙이므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첫 단계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여러 조치가 스스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도시간을 늘려야 한다. 우리의 기도란 내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마귀를 죽이는 박멸소망 기도를 하는 것이다. 적어도 매일 눈뜨자마자 그리고 하시는 것이 구세주의 율법이다. 정교 대면 예배를 볼 때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반드시 30분을 넘어 기도를 해야 하고, 틈만 나면 기도를 하여야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세주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승리제단에 나와서 구세주의 말씀을 읽는 것은 엄청난 복이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구세주에게서만 나오는데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그가 바로 구세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것이다.*

알다 보면 “아니!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할 정도로 새로운 말씀이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의 청각은 시각보다 훨씬 적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놓치기 쉽고 예배 시간에 깜빡 졸거나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세주 말씀 읽는 시간 가져라

필자가 최근 읽은 구절 중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은 구절 하나를 소개하겠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틈만 있으면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온다”는 구절인데 이 말씀은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셋째, 영생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 일반 종교인들과 달리 무량대수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는다. 세상 종교인들은 마귀의 영에 대개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같은 편을 공격할 리가 없지만 우리 식구처럼 하나님 편에 서있는 참 신앙인들에게는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둘째, 틈이 없어야 한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마귀는 바늘구멍만 한 틈만 있으면 무량대수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 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초초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초초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셋째, 틈만 있으면 무량대수 마귀에게 점령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와 치열한 싸움이 없이 대승 살아간다면 하나님 역사에 대항하거나 누를 끼치는 대마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난국일수록 자신을 더욱 짓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하고,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도 머리를 짜내어 말씀을 전해야 자신에게 유익함을 얻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그가 바로 구세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것이다.*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5대공약을 했고 장마철에는 장마가 지지 못하게 했으며,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지 못하게도 하셨다. 이러한 놀라운 권능은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세주에 배 말씀집

5

신간서적
승리신문 서구용

2001년 2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277쪽 / 큰문음씨

- ▶ 구세주 예배 말씀집 5집 펴냄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기는 삶

나에게 독(毒)이 되는 사람

나의 주변에는 나에게 보약(補藥)처럼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독(毒)이 되어 해악(害惡)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또 일을 복잡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만들며 갈등을 일으킨다. 무엇보다 나에게 나쁜 점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만일 나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계속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도 좋을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감정 콘트를 못하는 사람은 피하라

첫째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부터 기쁨을 느낀다. 특정 인물의 실언을 화제로 삼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괴로움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둘째는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기분이 상하면 아무에게나 막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문제를 나에게 돌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셋째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이들에게 공감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이 항상 요구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피해자 유형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넷째는 질투하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다른 사람은 항상 부러운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보다 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상대를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린다. 이들과 오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당신이 각고의 노력으로 성취한 일조차도 하찮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친분을 앞세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다. 당신을 친하게 대하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나를 살갓게 대하는 것은 나에게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함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피하라

여섯째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쪼먹는 존재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일곱째는 울퉁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며 절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깎는다. 이들은 당신이 열정적이고 표현이 풍부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막아낸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여덟째는 오만한 사람이다. 이들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다. 오만은 비뚤어진 자만심에서 발동하는 잘못된 자신감이며 이들의 오만 뒤에는 항상 초조와 큰 불안감을 숨기고 있다. 이들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오만한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성과가 나쁘고 무례하며 정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있다.

어떤 조직이든 이상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렇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공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이런 유형의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영적 상징과 꿈 <16>

부제: 영적 상징으로 본 모세 (3편)

(이번 호부터 <꿈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영적 상징과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리즈 초반, 주로 꿈을 다루던 것에서 점차 여러 경전과 신화 등 다양한 영역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꿈과 함께 다루는 흐름으로 바뀌었기에 제목도 그에 따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모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긴 상징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4> '모세,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다'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느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 (출애굽기 3:1)

: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인가?'라는 선문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선문답도 하나의 영적 상징으로 보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사(祖師) 즉, 달마는 구세주의 상징이요, 서(西)는 오렘 상 금(金)에 해당하니 합치면 구세주가 서방 정토 즉, 금운(金運)의 세계에서 오신다는 뜻이 됩니다. 구세주는 금운(金運)의 주인공이며 금(金)의 세계, 서방 정토, 서쪽에서 오게 되어있으니 조사(祖師)는 서쪽에서 오게 당연합니다.

서쪽 끝에 등장하는 호렘 산은 말 그대로 서방정토(西方淨土), 하나님의 세계의 상징입니다. 양이 구세주의 상징임은 지난 글에 말씀드렸거니와 모세가 양떼와 함께 서쪽으로 가는 이 장면은 모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땅을 떠나 서쪽, 즉 금운(金運)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광야를 지나 호렘 산으로 들어 가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있는 장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은 그의 심리적, 영적 위치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 때 왕족의 신분이었던 모세는 왕궁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 마귀 세상의 정점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을 다 잃고 변방 땅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그는 불모의 땅 광야를 건너

게 됩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떨어진 땅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땅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갑니다. 그는 신의 산호렘, 즉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곳으로 들어갑니다.

'호렘'은 히브리어로 𐤇𐤍 호렘브로 메 마르다, 건조하다,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호렘 산은 말 그대로 황폐한 땅입니다. 간혹은 인간의 발길이 닿는 광야보다도 더 거칠고 메마른 땅, 인간이 철저히 배제된 영역이 호렘 산입니다.

왕궁에서 변방의 땅으로, 다시 광야를 지나 결국 황폐한 산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은 모세의 인간(人間)을 걷어 내는 영적 과정의 한축입니다. 이렇게 왕궁, 변방, 광야, 호렘 산으로 바뀌는 장면의 흐름은 마치 거장 영화감독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고 배치된 미장센(mise en scene), 몽타주 시퀀스(Montage Sequence)를 보는 듯합니다.

세상 것, 마귀 것을 다 이고 지고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껍데기를 벗고 또 벗으며 드디어 호렘 산,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면5> '모세, 떨기나무 안의 불꽃, 하나님을 만나다'

'이해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나. 불꽃이 이는테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라며.' (출애굽기 3:2)

: 아름답고도 깊은 장면입니다. 떨기나무는 사막의 흔하다 흔한 잡목에 불과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떠돌고 있는 모세 자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이 불꽃은 생명을 태우고 죽이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살리는 불, 생명의 불꽃입니다. 그렇기에 떨기나무는 불꽃을 품고도 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의 이 불꽃은 분명 하나님의 신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가 모세 자신이요 떨기나무 가운데의 불꽃이 하나님의 신이라 할 때, 이



불꽃은 바로 모세 자신의 내면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신성(神性), 내 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땅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하나님도 이렇게 모세의 상징인 떨기나무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오히려 모세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 그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진면목(眞面目)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아직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아한 마음으로 자신의 불꽃에게 다가갑니다.

<장면6> '모세, 신을 벗다'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부르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4)

: 상징으로서의 땅은 영적인 땅, 마음의 땅입니다. 모세가 서있는 땅도 지형학적 인 땅이 아닙니다. 마음의 땅, '마음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 했으니 그 땅은 하나님의 마음자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찰나의 자리이며 내 마음과 존재의 중심(中心), 바늘 끝 한 점의 중심자리입니다. 이 땅은

'이변처중(離邊處中)'의 자리 즉, 나라는 껍데기의 층을 벗어난 중앙, 중심자리이며 부유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절대 중심의 자리이며 이긴자께서 습관처럼 말씀하시는 "이제 그대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불러 세운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가 '가까이 오지 말라'입니다. 거룩한 땅에 가까이 오지 말라니요.이상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자세히 보면 내가 신고 있던 그 신을 신고 있는 한, 이 거룩한 땅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 신을 벗고 이리로 오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뿐인 그 곳은 신발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신발은 모세가 이제껏 지나는 인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준 도구요 탈 것에 가깝습니다.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가 인간으로서 걸여온 모든 여정을, 그리고 인간적 길을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미 왕족에서 도망자 유목민 신세로 전락했고 왕궁에서 변방으로, 광야에서 다시 거친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이미 영육 간에, 속된 말로 그야말로 털털 대로 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거기서 한 번 더, 남아있는 마지막 껍데기까지 벗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 신은 인간에게, 마귀에게 잔인합니다. 방학(放)하(下)畜, 버려라, 버리고 또 버려라 하십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이는 인간의 탈을 벗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건너는 장면이요, 인간과 마귀의 땅 즉, 주변 테두리의 세계를 넘어 바늘 끝 한 점의 중심자리, 내 속 하나님의 땅에 발을 내딛는 정엄한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른 꿈 하나를 소개 할까 합니다. 수년 전, 제단 출신의 한 청년이 꿈입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구세주(이긴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name of the Messiah?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복서 2장 28절)"
▶ "I will give him the morning star (Revelation 2:28)."

이긴자의 존함은 한자로 희성(熙星)입니다. 이 이름은 빛날 희, 별 성의 밝은 새벽별을 의미합니다.
▶ The Victor's first name is Hee-Sung (熙星 in Chinese), which means "bright morning star."

성경에 나오는 '양'은 구세주의 탄생과 자결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7:14, 21:9, 22:3, 21:22, 21:27, 22:1).
▶ The story of the lamb in the Bible indicates the Messiah's birth and qualifications (Revelation 17:14, 21:9, 22:3, 21:22, 21:27, 22:1).

이긴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1931년은 '양'의 해이며 태어나신 달 음력 6월 또한 양의 달이며 태어나신 날짜는 28일입니다.
▶ The Victor Christ's birth year and month mean lamb. The Victor was born on June 28, 1931,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28'이라는 날짜는 별의 수(數)를 의미하며 이긴자께서는 영생을 상징하는 금운의 시간인 새벽 4시에 태어나셨습니다.
▶ The date 28th means a star in "the Book of Changes", and the Victor was born at 4 a.m. in the morning to signify gold, which symbolizes immortality.

이처럼 구원을 상징하는 양을 뜻하는 해와 새벽별을 뜻하는 이름으로 출생하지 않으면 가짜 구세주인 것입니다.
▶ If you are not born in the year of birth, which means sheep, and the name of "bright morning star", you are a fake savior.*

by Alice

<2012년 3월, K의 '불타는 가지' 꿈>

'큰 나무의 가지가 불에 타고 있다. 내 옆에 주님이랑 생각되는 분이 서있다.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니 그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재를 (주변에) 덮어 주라"고 말했다.'

: 이 꿈과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의 장면이 많이 닮아있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나무에 불은 불이라는 공통의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꿈의 나뭇가지에 불은 불은 떨기나무의 불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나무의 본체는 하나님 당체(當體)를 의미하며, 가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지들을 상징합니다.

모세 시대의 빈약한 담불이 21세기의 꿈에서는 큰 나무의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기신 하나님이 튼튼한 나무로 등장했고,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가지들이 연결된 모습으로 보아도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불타고 있는 이 가지는 꿈을 꾸는 청년 K입니다. 가지는 불에 타고 있다는 것은 청년 K가 당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싸여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K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직접적이고도 근원적입니다. 질문하는 자 스스로 불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기에 나온 질문입니다.

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재를 덮으라" 대제 무슨 말일까요. 재를 덮으면 불이

꺼질 텐데, 재를 덮으라니. 여기에는 암호와도 같은 영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꿈의 상징으로서의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닌 영적인 불, 하나님의 불입니다. 재는 분명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태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인간 껍데기, 마귀 신입니다.

이 꿈의 재는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 나온 재, 나라는 마귀가 화강(火鞴)되어서 나온 마귀 시체입니다. 마귀 나를 화강시켜서 나온 재이니 그 재를 뿌리고 덮을수록 하나님의 불은 활활 더 타오를 수밖에요.

나를 계속 죽이고 죽여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한 명령과 짝을 이룹니다. 오히려 나를 태워 죽여 그 재를 뿌리고까지 하고 있으니 모세의 시대보다 더욱 철저하고 발전된 영의 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의 시대가 이기신 하나님, 이긴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한 청년의 꿈이 위대한 성령의 장면과 여러모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모세처럼 흥룡해서 일까요. 아 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긴자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모두가 모세와 같은 구세주, 의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꿈의 명령대로 나를 죽인 재를 뿌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세주 하나님으로 거듭날지 말지는 그저 내 자신의 선택일 뿐입니다.*

- 4편에 계속 -
金輝 / 의사, kimtaek8@nate.com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93회)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구세주께서 응답하다

11절: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빛다
-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 3) 빛의 하나님께 왜 육신을 벗어두고 환원하셨을까
-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들게 하겠다
-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가)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지난호에 이어서)

이긴자의 풍운조화의 권능을 확신하고 증거하다

한편 2011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진리대학에서 '국제신종교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원불교, 대순진리회, 승리제단, 통일교, 예수교회, 바하이교, 모르몬교 등 각종 신흥종교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개회식 첫날 21일에는 신종교기관 일관도(貫道)를 방문하였고 익일에 한강현 신인류문화연구소장은 'The Hidden Manna and The Philosophy of Eternal life(갑추었던 만나와 영생의 철학)'이라는 논문주제(166페이지 분량)로 발표하였습니다. '갑추었던 만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가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린 양식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 불경에서의 '갑추었던 만나'는 금강과 같은 여래를 이룬 아미타부처님에게서 발하는 범성광명 또는 감로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긴자(Victor)의 영생철학을 논하는 가운데 위의 논문 77페이지 상단에 북서태평양 태풍진로도(연대미상)를 파워포인트로 스크린에 띄워 한반도 향해 불어오던 태풍이 갑자기 진로를 바꿔 동해안 내지 서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진리대학에서 3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종교문화답사로 자재궁덕회, 국제불광회, 도교사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태풍 메아리가 대만으로 향해 온다는 뉴스를 접한 일행은 6월 27일 타이베이 공항에서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강현 소장



2011년 대만 진리대학에서 열린 '국제신종교학술대회'에 참가한 학자들의 기념사진. 우측에서 다섯 번째 신인류문화연구소 한강현 소장.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ckehf1736/110123391106>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제가 논문을 발표할 때에 이긴자가 태풍을 막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이긴자를 증거하는 전도사가 여기에 있는데 태풍은 대만으로 불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일정대로 타이베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 26일 타이베이로 돌아온 일행은 도교사원인 보안궁, 행천궁, 자우궁을 답사하며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메아리 태풍은 한강현 소장의 말대로 대만 앞바다에서 꺾어져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의 현재속도를 감안하면 내일 타이베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뜬다고 해도 북한한 태풍 메아리가 한반도로 빠져나갈 만한 충분한 시간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서울행 비행기의 이륙을 낙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근접한 메아리 태풍이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하니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대로 태풍이 움직였지만, 백령도 근해에 와서 메아리 태풍이 딱 멈추어 서더니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영종도 인천공항에 비행기의 이착륙을 방해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저항하는 태풍의 풍무니를 냅다 꺾어치니 태풍 메아리는 북한 황해도까지 곤두박질치더니 곧바로 온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6월 27일에 타이베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당일 오후 4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상 예보관에게 태풍의 진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밖에 이긴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과 만물을 구원하여 에덴동산을 회복코자 지상에 친히 강림하여 역사하고 있음 빛의 자녀들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예컨대 기상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임관한 반기성 선생은 군생활 이삼여년 만에 공군 중앙기상부장이 되었고 대령으로 승진하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움직이시는 당신 스스로를 증거하기 위해 기상부장 반기성 대령을 들어서 쓰셨던 것입니다. 유교집안의 효심 깊은 반기성 대령은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갈 기회가 많았지만, 불심이 깊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망설였던 것입니다.

한때 대위 계급장을 달고 청수기상대장으로 지낼 때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중추시 불교신도회장이셨던 어머니는 아들 반기성의 쾌유를 위해 절에서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님 병세에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절의 주지 스님께서는 "아드님을 교회로 보내시면 어떻까요. 기묘 교회를 나가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반기성 선생은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로 나가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실히 믿는 목자를 반기성 선생과 그의 부인 앞으로 보내어 그 목자의 얼굴

에서 하나님처럼 영광을 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체험한 반기성 선생은 그 자신속의 병마가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심한 천식으로 장기간의 약물복용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나 신장이 망가지고 위에 염증이 생긴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천식이 크게 발작할 때에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2000년 5월 29일, 공군 중앙기상부장이 된 마흔일곱의 반기성 대령은 태풍의 진로를 마음대로 바꾸어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하 반기성 선생께서 저술한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기상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간증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000년 9월 11일 새벽이었습니다. 반기성 대령은 아침 일찍 예보실에 나와 기상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수 자료를 보니 태평양에서 북상하는 태풍 사오마이(괘 동쪽바다에 발생한 '사오마이'는 베트남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금성이라는 뜻의 전단부에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일본에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곳에 따라 6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구름이 우리나라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기상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정보작전참모부장은 태풍의 진로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고 곧바로 태풍이 북상하면 항공기를 대피시킬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은 항공기, 특히 대형 기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격납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상될 경우 대형 기종은 태풍 진로 밖으로 대피시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육군과 해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약천후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설 보호를 위해 미리 배수로를 확보하고 절개지를 덮어주는 등의 예방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약천후 때의 기상예보는 중요합니다.

다음날 최종 결정을 해서 보고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난감했습니다. 대부분의 태풍이 북위 27도까지 북상한 후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진로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보실로 돌아와 태풍을 분석했습니다. 중심기압이 925hPa(헥토파스칼)의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대만의 진로 예측을 살펴봤

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서 서해상으로 북상해 라오동반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 보고하면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관행대로 서해상으로 진행하는 예보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웬지 불안합니다. 일본 미국 대만 중국까지 같은 진로로 예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태풍의 진로를 볼 수 있는 눈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에 태풍이 마음대로 바꾸어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상관측기관들과 달리 동쪽으로 움직였습니다. 12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태풍이 동쪽으로 움직인다는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보실에 나가 기상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20여년 동안 태풍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한 감각이 살아 꿈틀거렸습니다. 계절적으로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의 경우 세력이 약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움직일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전날 자료를 뒤집고 태풍이 동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추석에 가족과 함께 지내던 조종사와 함박사, 정비사들이 비상소집됐습니다.

공군의 모든 예보는 기상대나 기상대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지원합니다. 그러나 태풍의 경우 중앙기상부에 예보 전권이 있습니다. 13일부터 예하 기상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예상과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전혀 다른 예보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예보를 이렇게 내셨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의 박사학위자들이 다 엉터리란 얘기를 하니까, 올해 올라왔던 태풍을 보십시오. 일본과 미국측에서 예보한 진로가 다 맞았잖아요. 도대체 부장님은 무슨 근거로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보가 틀리면 부장님이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우리 기상전대의 위상에 나는 흠집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14일 자정 무렵 북서진하던 태풍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몇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대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

상부장 반기성 대령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일 저녁 텔레비전 뉴스의 기상예보도 반기성 대령과 반대되는 태풍 예상 진로를 내놓았습니다. 4일 동안 동료와 부하들의 송곳같은 질책에도 꺾였는데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곧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16일 새벽 6시, 태풍 사오마이는 반기성 대령의 예보대로 정확히 사천공항 동쪽으로 상륙하여 시속 45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 영남지역을 단 12시간 만에 관통하였습니다. 비의 양과 바람의 속도까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의 진로를 가르쳐주시고 이통시키셨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세주가 권능을 행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1981년 이후부터 한반도에 불어오던 어떤 태풍도 벼농사를 흉년들게 하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한반도 남쪽바다에서 태풍을 동해나 서해로 비껴가게 하거나 기류에 단비를 동반하는 효태풍으로 화하게 하는 등 마음대로 조종하셨기 때문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슬성신절, 이긴자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태풍을 막는다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인불인 천신강(似人非人 天神降)!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인간 사람 몸만 입었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제단에 오려 나온 사람들은 다 알죠? (네) 이 사람이 말만 던지면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안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태풍 못 불어오게 한다.' 그랬죠? (네) '여름장마 못 지게 한다.' 그랬죠? (네) 또 '풍년들게 한다.' '우리나라 전쟁 못 일어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사람, 5대 공약을 왜 했느냐 하면, 진짜 구세주라는 걸 알아보라고 하기 위해서. 바로 구세주라야 이 5대 공약을 이행하는 거지, 구세주가 아닌 사람은 이런 5대 공약 같은 걸 이행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합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20>

용화교주 미륵과 극락교주 아미타의 실체는?

용화교주인 미륵불은 극락교주 아미타부처와의 차이는 영육과 능력의 차이이다.

앞서 미륵이 아미타라는 석가모니의 불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열반경의 동기일명호(同其一名號)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즉 미륵보살이 성불하여 미륵부처님(彌勒佛)이 되고 미륵여래가 되기까지 피눈물과 마귀와의 격렬한 투쟁으로 이루어진 50년간의 길고 긴 수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극락교주 아미타부처님은 차이가 뭘까요?

석가모니는 아미타부처님에 대해 불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미타경(阿彌陀經)

爾時佛告長老舍利弗 從是西方過十萬億佛土 有世界名曰極樂 其土有佛號阿彌陀 有世尊名曰極樂 其土有佛號阿彌陀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사리불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십만억 불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고 그 땅에 이름이 아미타인 부처님이 계신다."

해설 : 여기서 석가모니는 제자인 사리불에게 서쪽 방향을 이야기한다. 서쪽 방향은 오행상 서방(西方)을 말하는 것이고 운세는 금운(金運) 의미한다.

미륵부처님도 동방 아축불(阿閼佛)을 거쳐 서방 금운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아

미타불도 미륵불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아미타부처의 별명이 몇 가지 있는데 수명이 한량없이 길어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고 하며 또 극락은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미타부처의 몸에서 끝없이 빛이 방출되기에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절집에서 보면 아미타부처는 손에 감로(甘露)를 들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 준다고 한다. 이 감로가 마시는 차(茶)가 아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체인 빛(光)이라고 지난번 밝힌 바 있다.

감로에 대해 석가모니는 열반경에 기록 하길,

[예] 대반열반경 31권 기법보살품(迦葉菩薩品) 제 24-1

涅槃亦名涅槃...亦名甘露 열반역명열반...역명감로

열반은 또 열반이라고 이름하고...또 한 감로라고 하며...

[예] 대반열반경 9권 보살품(菩薩品) 제 16

大涅槃光能入衆生諸毛孔故 大涅槃광능입衆生諸毛孔故 衆生雖無菩提之心 而能爲作菩提因緣 衆生雖無菩提之心 而能爲作菩提因緣 是故復名大般涅槃 是故復名大般涅槃 시고부명대반열반

대열반(감로)의 빛이 중생들의 모든 털구멍을 통하여 들어가므로 중생이 비록 보리의 마음이 없다 해도 능히 보리를 짓게 하는 인연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이르면 대반열반(위대한 감로)



아미타부처는 손에 감로(甘露)를 들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 준다(위의 사진은 감로광명을 촬영한 모습)

이라고 부르느니라.

해설 : 석가모니가 이 경에 말을 달리 하면서도 결국은 한가지 의미에 표현을 달리 하니 제자들이 헤메고 만 것이다. 그러나 지난 호의 글처럼 미륵부처님이 아미타불이라는 동기일명호(同其一名號)로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극락까지는 길이 멀다.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마귀에게 패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쪼개져 아담은 남자가 되고 해와는 여자가 되어 분열과 죽음이 이어져 오는 마귀가 점령한 인간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6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속의 마귀를 죽이고 신인합일(神人合一) 성불하여 1980년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明鐘

음식과 수행

껍질째 먹으면 더 좋은 과일과 채소

포도 껍질의 레스베라트롤은 심혈관질환을 예방

과일과 채소 껍질에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많이 검증되고 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식물이 자외선과 외부환경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드는 물질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 즉, 식물의 방어용 분비 물질인 셈이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수박이나 토마토처럼 빨간색뿐만 아니라 다른 색 과일과 채소의 껍질에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위생에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음식 쓰레기로 버려졌던 껍질들이 최근에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환영받고 있다. 이번 호에는 영양소가 풍부해 껍질도 함께 먹는 것이 더욱 좋은 과일과 채소에 대해 알아보자.

혈압과 심혈관질환에 매우 좋다. 이 성분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노폐물 제거에도 효능이 있으며 기타 비타민, 무기질 등의 필수 영양소도 풍부하다. 수박을 드실 때 과육과 함께 하얀 껍질 부분을 같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또 수박 껍질을 활용한 수박김치도 아삭한 맛이 일품이다.

넷째, 호박

호박 껍질에는 아연이 많아서 피부와 손톱 건강에 좋다. 또 폐농산과 베타카로틴도 함유되어 있어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호박은 따뜻한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잘 익혀 먹을 수도 있고 굵거나 샐러드, 죽이나 수프로 만들게 되면 쉽게 섭취할 수 있다.

다섯째, 오이

오이 껍질에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몸의 면역성을 높여 준다.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면 탈모 방지에 도움을 주고 발모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여섯째, 감자

주먹크기의 감자 한 개의 껍질에는 하루에 필요한 섬유소, 칼륨, 철,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감자 껍질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감자가 가진 철분의 70%가 감자 껍질에 있다고 하니 잊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감자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식을 잘 제거하여 요리하도록 하자. 감자 껍질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은 얇게 잘라서 구우면 껍질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야채와 과일의 껍질을 이제부터는 놓치지 말고 꼭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승우 기자



첫째, 포도

포도 껍질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항산화와 항암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밖으로 배출시켜 심혈관질환을 예방한다. 육식을 많이 하는 프랑스인들의 심혈관질환 비율이 낮은 이유도 포도씨와 껍질까지 발효시켜 만든 포도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다.

둘째, 사과

아침에 먹는 사과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사과 껍질에는 '셀룰로오스'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장으로 들어가 젤 형태로 변해 배변량을 늘리고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준다. 껍질에만 있는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예방에 좋으며 폴리페놀 또한 풍부하여 몸 안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셋째, 수박

수박 껍질에는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시트룰린 성분이 풍부하고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마귀(魔鬼)성(城)”

나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마귀성(魔鬼城)이요, 마귀의 영(靈)이요, 마귀의 영육(靈肉)이요, 마귀의 육신(肉身)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의식(意識)만 제거(除去)하면, 나라고 하는 것만 없애버리면, 마귀 집을 부숴다가 되고 마귀영육(魔鬼靈肉)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가 되는 고로, 마귀나라가 망했다가 되고 하나님 이 점령했다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하는 비결은 나라고 하는 것을 죽이면,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라고 하는 마귀성(魔鬼城)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비틀어진 고관절 수정, 척추 스트레칭~

허리와 골반 근육을 강하게 하고 유연성을 높여 척추질환을 예방한다. 틀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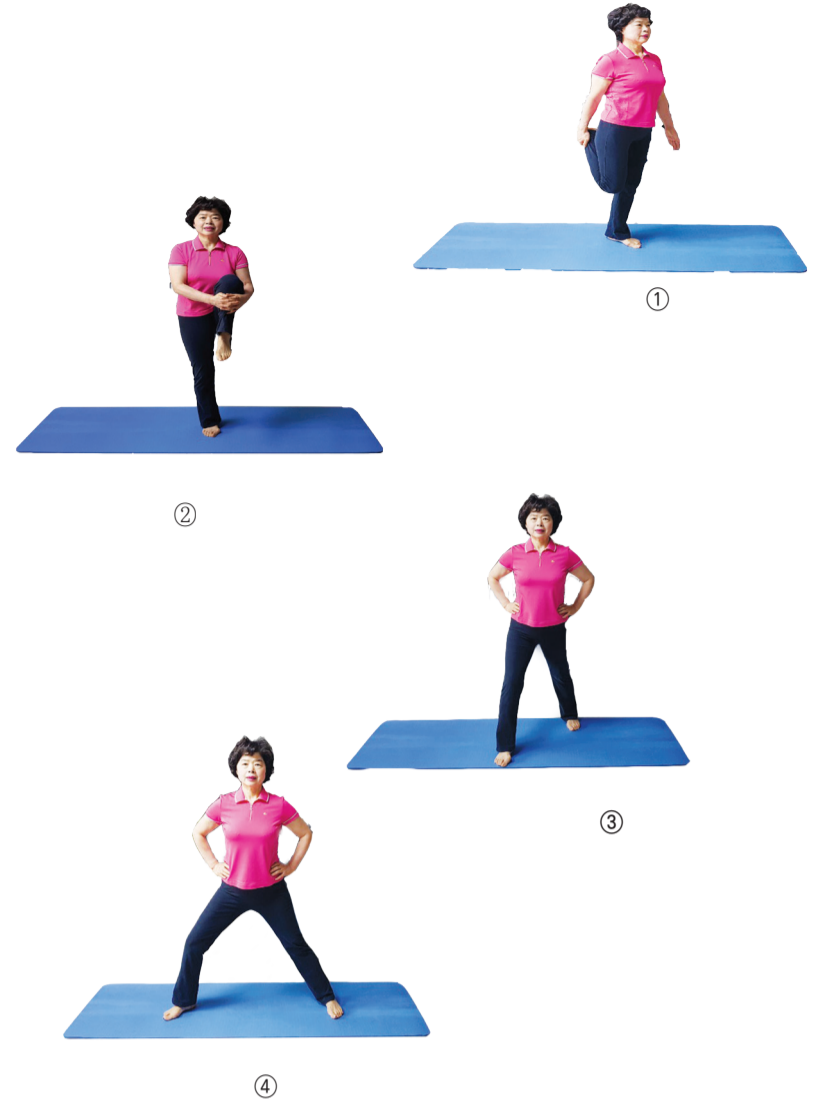
고관절, 특 튀어나온 고관절을 교정하여 틀어진 몸매를 바로 잡는다. 팔과 가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운동 효과도 낸다. 꾸준하게 수련하여 실천하는 것이 탄력 있는 근육과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

동작①: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올려 같은 방향 손으로 발목을 잡아 멀리 당겨 10초 유지한다. 좌우 각각 3회. 이때 허벅지가 당긴다는 느낌이 들도록 내 몸의 능력에 따라 실시한다.

동작②: 한쪽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올린 뒤, 허리를 세우고 깎지 긴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잡는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③: 양 다리를 앞 뒤로 세우고 양 무릎이 대각선이 되도록 한다. 앞쪽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뒤의 다리와 무릎은 쪽 펴준다. 허벅지와 발바닥에 힘을 준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④: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2배 넓게 확장하고 선다. 한쪽 다리는 옆쪽으로 뻗어서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옆으로 쪽 뻗는다. 이때 발바닥의 방향은 11자를 유지



한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 주의: 무릎을 지나치게 구부리지

않는다. 구부린 무릎으로, 체중을 이동시킬 때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생명샘

예수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면 기겁을 한다. 미친놈 취급을 하거나 이단종교에 몰든 자라고 생각한다. 어떤 예수교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듯이 자신있게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대화해 본 적도, 손을 잡아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척하고 있다. 그런 엉터리 주장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남성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든다. 하나님을 거시기(?) 달린 남자처럼 여기는 근거가 뭘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 웃기는 노릇은 하나님에게 자식이 있는데 '독생자'라면서 예수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장모 장인의 존재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돈에 8촌까지 거론할 만하데 그런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아예 거론조차 안 한다. 이쯤 되면 어느 쪽이 미친놈인지 분별이 되는 거다. 예수교의 교리를 잘 살펴보면 너무도 해괴하고 기괴하다. 그 교리의 복잡성과 혼란성으로 예수교는 헤아리기 힘들만큼 분열되어 있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영호아의 증인, 순복음... 하나님을 잘 알고 정확히 안다면 서로가 단결되고 화목해야 정상인데 자주 분열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서 잘 아는 척하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제 실상을 말해보자. 실상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옛날에 동학(東學)교도들은 인주천(人 주天)이라 했다. 정확히 말한 거다. 사람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혁명을 일으키는 존재도 사람이고 군주제를 폐지시키거나 의회정치를 같은 각종 사회제도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도 사람인 거다. 예수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텔레비전을 만들

고,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 세상에 던져 주었는가? 천만에 말씀. 사람이 지닌 창조력으로 그렇게 다 만든 거다. 인간의 창조력은 무한대다. 핸드폰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더 좋은 제품이 나오듯이 그 창조력은 영원 무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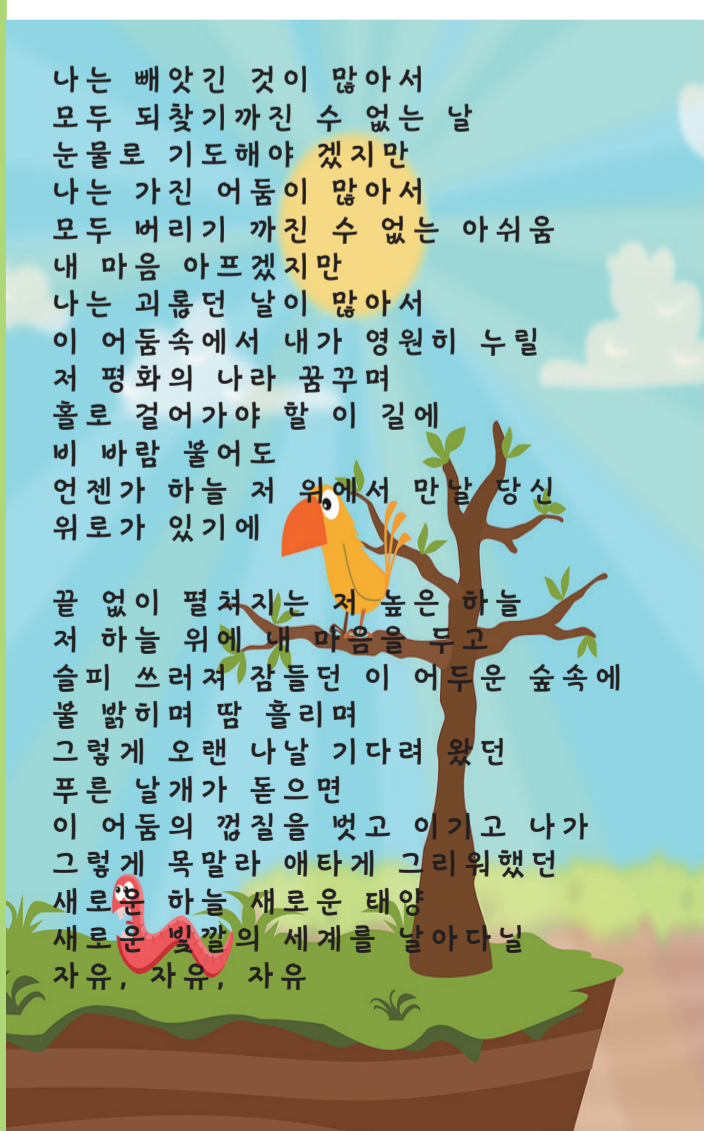
그래서 사람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에 대해 더욱 많은 내용을 알게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기와 살인 등 악마나 행할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가까운 인물이 있고 짐승에 가까운 인물이 있다는 거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 인간을 만나는 일도 이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재수가 좋으면 이 허망한 세상에 온전한 인간, 진짜짜기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교인들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본래의 신분인 하나님으로 돌아가느냐고 질문까지 해보았다고 말하면 그 반응이 어떨지 엄청나게 궁금하다. 상썩삼 먹다가 돌 씹은 얼굴일까?*

인준영 승사 / 시드니제단

시 한편 생각 한 줄

푸른 애벌레의 꿈

하덕규



나는 배앓기 많이 해서 모두 되찾기까진 수 없는 날 눈물로 기도해야 했지만 나는 가진 어둠이 많아서 모두 버리기 까진 수 없는 아쉬움 내 마음 아프겠지만 나는 괴롭던 날이 많아서 이 어둠속에서 내가 영원히 누릴 저 평화의 나라 꿈꾸며 홀로 걸어가야 할 이 길에 비 바람 불어도 언젠가 하늘 저 위에서 만 날 당신 위로가 있기에 끝 없이 펼쳐지는 저 높은 하늘 저 하늘 위에 내 마음을 두고 슬피 쓰러져 잠들던 이 어두운 숲속에 불 밝히며 땀 흘리며 그렇게 오랜 나날 기다려 왔던 푸른 날개가 돌으면 이 어둠의 껍질을 벗고 이기고 나가 그렇게 목말라 애타게 그리워했던 새로운 하늘 새로운 태양 새로운 빛깔의 세계를 날아다닐 자유, 자유, 자유

무척 무더웠던 여름도 건디다 보니 삼복더위 다 지나고 처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여름은 너무 더워 수박 작황이 좋지 않아 금덩어리만 별명인 불을 정도로 수박값이 올라 여름의 대표 과일이지만 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먹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 더위에도 시원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던 이번 트가 있었으니 도쿄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이다. 코로나로 열릴 수 있었지가 불투명했지만 전 경기 무관중을 원칙으로 개최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개막식부터 텅 빈 관중석을 보니 무언지 허전한 기분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는 어느 대회보다도 더 뜨겁게 느껴졌다. 생기발랄한 미소를 짓고, 때로는 이글거리는 눈빛, 힘찬 몸놀림으로 젊음의 기운을 발산하는 선수들을 보니 나 또한 병의가 된 듯 젊어진 기분이 들고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나라 10대의 어린 탁구 선수와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가 자신이 원했던 만큼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아쉬움의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머리 정수리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같은 공감을 느끼면서, 그간의 정열을 다한 노력에 위로의 응원을 해주고 싶었다. 무릎의 연골도 없고 상대적으로 예소한 몸집으로 결승전까지 올라갔으나 패배를 하고는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며 축하해 주는 우리 유도선수를 볼 때나, 우리나라에 아깝게 패한 일본 여자배구 선수들이 경기가 마치자마자 아쉬움은 뒤로 하고 재빨리 나란히 줄을 서서 각 듯하게 인사하는 예의를 보여줄 때도 그 매너에 감동을 받았다. 선수들은 아쉬움과 회한, 또한 감격과 기쁨의 눈물과 웃음을 많이 흘렸고, 비대면으로나마 시청한 전 세계인들도 감동의 눈물과 웃음을 무척 많이 흘렸을 것이다. 전 세계인이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지만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을 힘을 얻었을 것이다. 또는 마음 한 구석에 있던 해몽은 꿈을 다시 들추어

내고 먼지를 털며 다시 해보는 용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나 또한 이번 올림픽을 보며 나의 인생을 반추하고 반성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얼마전 휴대폰 컬러링 상품을 바꾸려고 통신사에 전화를 하니 안내원이 단돈 100원으로 한 달간 음원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니 참여해 보라고 권했다. 나는 기계이 응해 절차를 밟고 그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 내가 좋아하는 '시인과 촌장'의 노래를 오랜만에 들어보았다. 20대 때 이 듀엣의 노래 테이프를 사서 듣다가 눈물을 펄펄 쏟은 경험이 있었다. 노랫말과 그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계속 이 가수들의 노래를 즐겨 들은 것으로 기억된다. 누구라도 그러하겠지만 10대, 20대 때는 감수성이 풍부해 작은 유머에도 깔깔대며 웃고, 작은 미담에도 눈물 흘리고, 쉽게 사랑하고 미워하며, 이런저런 꿈도 많고 정열이 넘치는 때이다. 사회에 때가 묻지 않아 오래된 관행이라도 잘못된 것은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정의감이 넘쳐 불의를 그냥 보고 지나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앞서 얘기했던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예가 되겠지만 넘치는 힘과 정열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 어찌 정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겠는가? 하지만 서른, 마흔, 자루 나이를 먹다 보니 감수성의 축소도 무더어져 웬만한 일에는 감동의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가깝던 멀던 지구촌의 동포가 쓰러지거나 죽어도 연민의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른다. 좋은 꿈을 품었다 해도 애써 노력하지도 않고, 이루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른다.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것이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나

는 20대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가 작은 장애물이라도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 여자 배구의 김연경 선수가 도미니카와의 경기에서 함참 뒤질 때도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하고 동료들을 독려했던 그 패기의 눈빛이 떠오른다. 나 자신, 정말 해보지도 않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다.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요즘에 와서는 젊은 시절 조금 공부하다가 그만 두었던 중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머리가 무더어져 공부하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공부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먹는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올림픽에 임하는 선수들처럼 패기있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보려고 한다. 늦은 밤 티브이 토코쇼에 양궁의 안산 선수가 나와서 하루 8-12시간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행운의 신도 노력하는 자를 선택하여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던가! 이런 신인선수뿐 아니라 오랜 선수생활로 부상을 입어 몸이 성치 않은 노장의 선수들도 아픔을 건디며 연습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전에 국악방송에서는 한 장애인 악기연주자가 나와 거의 하루종일 연습에 매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노력하면 낫는 것은 익숙해지고 어려운 것은 쉬워지기 마련이며, 건디다 보면 건디지 못할 것도 건딜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몸소 보여준다. 요즘 넘어가기 심히 어려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 같다. 또 저마다의 마음속에 품었던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도 많아 보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고 외쳐보자.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리준경 / 대구수리재단 책임승사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을 분별 못하는 기독교인들

격압유룩에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인불인천신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있는 밀실에서 연단을 받고 나왔는데 격압유룩에는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서 삼신이 역할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삼신할머니라고 그랬지? 삼신이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서 역할을 한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격압유룩에 뚜렷하게 쓰여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 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역사를 하나 하면 인간들이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의 말씀이요?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존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요? 그 말이 성경적인 말이요, 비성경적인 말이요? 예수는 비성경적인 말을 한 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공중권세 잡은 신이 악신이다" 악신이 마귀 신이요? 그러니까 하늘쪽대기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공중신은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면 마귀요? 그래서 하늘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사전을 펴는 곳에 가보면 예수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다, 땅을 쳐다보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거요? 마귀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니 마귀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람은 신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식인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마귀의 영에게 점령당하여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죠? 성경 말은 영적 말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영적 말이니까 선악과가 영적인 과일이 되는 거요? 영적 과일이 영이요? 영이 바로 신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이 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이라면 마음이 신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노라 하는 기독교에서는 이걸 보고도 알아요, 몰라요? 그 성경구절이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신들이니." 너희들은 사람들을 가리킨 거요? 사람들은 다 신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사람더러 신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

신분별을 잘못하는 기독교인들

오늘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지 신학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인지를 몰라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신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공중하늘에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신은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세주 조희성님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또 민수기 27장 16절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하나님이요? 말은 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육체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신이고 사람의 몸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기독교는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피로써 살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살의 세포가 육신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오장육부도 피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 피로써 사람의 뼈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하나님이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피는 사람의 마음과 일치되는 물질이요, 물질로서는 피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체로서는 마음을 가리키

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영이라고 했던 겁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쓰여 있죠?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피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쓰여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이 피라고 했던 것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요?

몸과 영이 따로 있지 않고 일체다

그래서 성경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인간의 몸이 따로 있고 인간의 마음인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일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틀림없죠? 이 나무의 생명도 하나님 틀림없죠? 이 꽃의 살아

있는 생명도 하나님 틀림없죠? 이와 같이 나무나 풀은 어느 한 시한이 되면 다 죽죠? 사람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질이 공기 속에 있는데 세상 과학에서는 산소를 마시고 사람이 산다고 하지만 실은 코로 공기 속에 있는 생명의 물질을 취득을 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과학자들이 이렇게 무식합니다. 여러분들, 과학 박사들도 많고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이 과학자들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욕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고 격압유룩에도 쓰여 있고 불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사람이 신이라고 했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왜 되느냐?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해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조상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 피로 인간의 후손들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전부 아담과 해와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라는 마귀새끼가 와가지고 하나님 자식과 하나님 간의 이간질을 붙이는 바람에 사람을 흠으로 만들어서 창조를 했다고 성경에다가 적어 놓은 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흠으로 만들어진 몸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있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보통 많죠?

사실은 사람처럼 미련하고 사람처럼 어리석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제일 많이 깨달았다는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만물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건물이 버티고 서 있어요, 저절로 서 있어요?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물질 속에 생명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에게 얘기하면 콧방귀 먼저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뭘 알아야 공정을 하죠.

중성자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전자가 회전한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데, 원소 속에 핵이 있는데 그 핵에는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뱅뱅 뱅뱅 돌아갑니다. 그걸 말해서 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마이너스 전자가 뱅뱅 뱅뱅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저절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게 이치에 안 맞죠?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면 그건 말이 맞죠? 사실은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해야 그 논리가 정확한 조리 있는 논리이고 과학적인 논리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까지 대답을 해주는 자가 진짜 생명이요? 돌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까지도 알아야 하는 사람이요? 마이너스 전자가 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뱅뱅 뱅뱅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돌아가는 힘이 중성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바이트론(Biotron)입니다. 물질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은 중성자의 영이 죽는 순간 썩는 겁니다. 바이트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질이 죽을 때에 그 물질은 썩어 문드러지고 죽을 때에 이런 건물도 무너지는 겁니다.*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3장 야곱의 하나님》

(15) 유다의 비행(卑行)

(15) 유다의 비행(卑行) - 1

헤브론 마르레 천막에서 서북쪽으로 20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아둘람 성읍까지 올라온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 자신이 찾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푸쟁이 노릇을 하는 히라는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은 그 여인은 미모가 뛰어나 성읍의 남자들이 서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거늘, 이미 남편을 둔 아내가 되었노라."

히라의 말에 실망한 유다는 아둘람 성읍의 주막에 가서 술을 마구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 수어의 딸이 창녀로 가정하여 유다를 유혹하니, 유다가 그녀를 취하여 동침하였습니다. 그



유다와 아둘람 사람 히라

리하여 유다와 통간한 수어의 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유다는 그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 '오난'을 낳고 또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어의 딸과 통간하는 유다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히라라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어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는 세 아이들을 낳은 후 푸쟁이 히라를 따라 아둘람에서 서북 7킬로미터쯤에 있는 거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푸쟁이 히라는 유다의 재물을 탐하였고 유다에게 이웃마을 거십에 예쁜 창녀들이 많다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바람이 많은 유다는 히라의 매춘알선에 만족하였고 푸쟁이 히라를 친구처럼 친하게 사귀었습니다.

거십으로 이주해온 유다는 많은 창녀들과 향락을 빼졌고 유다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해준 뉘나 출신의 창녀 다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만아들 엘의 아내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말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들려있는 음녀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다말은 남편 엘의 기력을 다하게 하여 일찍 죽게 만들었습니다.

음녀 다말은 남편 엘이 죽자,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음욕을 품었습니다. 다말은 나에게 오난을 주어 당신의 대를 잇게 하라"하고 유다에게 간교스럽게 말했습니다.

술주정뱅이에게다가 오입쟁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가 시아버지를 진정 위하는 줄 알고 둘째 아들 오난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오난아,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은 더러운 창녀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의 침상에 올라오는 다말을 밀치며 솟구각으로서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악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교활하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습니다.

"오난이 당신의 며느리를 끌어안고 탐하기만 하고 씨를 배막에 흘립니다. 그가 형의 이름을 이을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분개하더니, 곧바로 아들 오난의 침소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오난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2

1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에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수훈(嫂婚)이 있었다.

2 훗날 유대왕국을 건설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되는 유다의 경솔하고 파렴치한 전력(前歷)을 감추기 위해, 유다가 그의 아들 오난을 목졸라 죽인 사실조차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시니(창38:10)"라고 성경을 조작하여 하나님을 사람 죽이는 백성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창세기 38장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이를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와 동침한 다말이 증표(胎兒)를 요구함

유다가 둘째 아이들을 살해하는 모습을 지켜본 며느리는 짐짓 놀라는 척하였습니다. 다말은 겉으로 오난의 죽음을 애도해하고 또 일부러 아픈 척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꾀병에 속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네 친정집에 가서 몸조리 잘하라"

과부 다말은 거십(또는 악십)을 떠나 북쪽 13킬로미터쯤에 있는 뉘나에 갔습니다. 뉘나는 창녀들이 몰려 사는 곳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다는 다말을 연모해왔지만 자신의 며느리에게 동정하려는 일만은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도 전에 죽으면 영영 자신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가 떠나지 않았는데, 아나나 다를까 셀라마저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다의 아내 수어의 딸까지 죽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 히라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다말과 동침하고도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을 받지 않는 방도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푸쟁이 히라는 자신에게 좋은 계획이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히라와 함께 뉘나로 올라갔습니다.

히라는 다말을 만나 말했습니다. "오늘밤에 너의 침소에서 시아버지 유다의 동침을 허락하라. 네가 유다의 아이를 얻게 되면 그의 재산은 정녕 너에게 상속되리니"

아무리 계집질에 이골이 난 유다라 할 지라도 차마 맹생맹성한 정인으로 며느리를 겁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며느리 집을 찾아가서 다말에게 탐버들었습니다.

영리한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한테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도장과 도장 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동침한 증표로 삼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Most Christians Do Not Say Where God Is and Where Devil Is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GyeokAmYouRok says that Jeongdoryeong seems like a human but he is not a human being. It writes ‘似人 不人 天神降’. It indicates that he is the God of heaven came down. This man came out from MiSil(the Secret Chamber) between Sore Mountain and Nogo Mountain after being trained there, GyeokAmYouRok records that the Trinity plays his role between Sore Mountain and Nogo Mountain. GyeokAmYouRok calls the Trinity of the Bible the Trinity Grandmother. It clearly says like that. The reason that the Trinity is wearing the body of a human and working in the world is because all humans are the descendants of the Trinity.

Bible Says Humans Are Gods

As you are the children of the Trinity, that is, because the Trinity, Adam, Eve, and God, were occupied by Satan, the Bible described the moment that the Trinity was occupied by Satan(the spirit of Satan) as they ate the Forbidden Fruit. According to the Bible, the word of the Bible is the spiritual one. So, the Forbidden Fruit is a spiritual one. The spiritual fruit is the spirit. And the spirit is a god. The Bible writes that the heart of humans is the spirit, that is, if the heart of a man is the spirit, the heart of a human is a god. Psalms 82:6 of the Old Testament writes, “You are gods, the sons of the Most High.” However, Christians believing the Bible do not know this. They don’t even know that the verse exists in the Bible.

But the Bible says, ‘You are gods...’ In that verse, ‘you’ indicate humans. The verse means people are gods. All humans move by their minds not by their bodies. So the owners of humans are their hearts. So the verse of the Bible, “humans are gods” is truth.

It says, “You are gods, the sons of the Most High.” Who is the Most High? It implies God. This means that all humans are the children of God. However, Jesus said that he is the only son of God. That word is not a Biblical one. Jesus said a non Biblical word. It signifies that Jesus is not the son of God and he is not a man who moves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here is a verse about Jesus,

“Ephesians 6:12 writes that god that has the power of the air is the evil god.” The evil god is the devil. It means that demons are in the sky. It means that Satan is in the sky. Ephesian 6:12 says like that, Ephesians 2:2 also records,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The spirits who works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are the devils.

The Bible says that demons are in the sky, looking at the pictures of Jesus, he is praying toward the sky. It means that the God of Jesus is in the sky. Because Satan is in the sky and Jesus is the son of Satan, he prayed to Satan his God Father.

Christians Do Not Say What Is God or Devil

So, today those who study theology and teach theology, pastors and so on, all these do not distinguish gods. If you read the Bible in detail, you will be able



to clearly identify gods. Obviously, there are devils in the sky, and the Spirit of God is in a man. The Bible says,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to him all are alive.” in Luke 20:38.

The Bible writes that God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Also there is a verse saying that God is the spirit of flesh in Numbers 27:16. In Christian ways, they would say that God is a spiritual one, right?

However, the Bible surely says that God is the God of flesh. That is, the Bible says that the body of humans are Gods. Not only the human body is God but also the human body is the spirit. Christians telling that spirit and flesh are separated talk wrong. The body of humans was made of their parents’ blood. So flesh cells are now made with human blood, and flesh cells make the

body. So, are the organs of the human body formed from blood? The bone of a man is created with blood.

We can see that God is the God of flesh clearly because human blood is a substance that conforms to the human heart, blood is a substance, but as an invisible body, it’s now pointing to the mind. So Proverbs 4:23 say, “The source of life is in the mind.” That means the mind itself is life. That is, the heart itself is blood, and blood is life, according to Leviticus 17:11. Therefore, that life is blood is the same with that the mind is the source of life.

Flesh And Spirit Is Oneness

Those who know the Bible exactly see that a human body is not separated from their spirit, a human body and a human spirit are one. John1 records “God is life.” The life of humans is also God. The life of a tree is God, too. The life of

making flowers live is also God.

However, trees and grass are all dead some time or other. Because the material of life comes from humans and stays in the air. Scientists say that people imbibe oxygen and live, in fact, they live by absorbing the material of life in oxygen through their noses. Today, science is not so advanced. Scientists in this world are so ignorant. Although there are many good scientists and there are many smart people in this world, if This man ignores those scientists, some people would blame him, surely there is a word that life is God according to the Bible, GyeokAmYouRok, and the Buddhists scriptures. Life is God, all humans are Gods, and people are the children of the Most High in accordance with Palms 82:6.

Why do they become the children of God? Because the first ancestors of humans are Adam and Eve, according to the Bible, Adam and Eve are the ancestors of mankind, right? The descendants of humans were created with the blood of Adam, Eve, that blood has come to today. So, do we all resemble Adam and the Eve? Yes. But do the people of the world know that our ancestors are God? Because Jesus came and separated men from God saying he is the only son of God and the Bible says that humans were created with soil, all people believe that they were made with soil. Those who believe that word are fools.

In fact, there is no such thing as foolish as humans. Even scientists who are said to have realized the most among people in this world do not know the

reality of God. The substance of God is in all things. Is this building standing still? That’s because there’s the God of life in the material that holds this building. If This man tells this fact to scientists around the world, they will laugh at This man because they are ignorant.

Electron Gains Energy Out Of Neutrons. circulating around Nucleus

Because every substance in the world come together to form matter. Each element comes together to form matter, an element has a nucleus, and the nucleus contains neutrons. Negative electrons rotate around the neutron. That is an element. However, scientists say that the negative electrons are rotating by themselves. Does it make sense to say spinning on its own? As they do not know about the turning power, they say like that. It’s the exact scientific logic to say that they go around because of a turning force. The man who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ere the turning power comes from is the true teacher. The negative electrons are spinning around the neutron, where does that rotational force come from? It comes from neutrons.

A neutron is God. In English is biontron. At the moment the spirit of a neutron dies, a material goes bad. So when God’s substance of life, called biontron, dies, the material dies, this building’s biontron dies, it collapses.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Translation: Angela Kim

구세주는 지금도 5대공약을 실천하고 계신다

1981년 8월 승리제단을 설립한 조희성님이 인류의 구세주·정도령·미륵불이라는 것은 성경과 불경, 그리고 격암유록에 성함과 출생지를 비롯한 인적사항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아 경전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분이 설하신 완벽한 영생의 진리와 생전에 행하신 전무후무한 권능의 역사를 보아도 조희성님이 불사 영생의 도를 완성한 이긴자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초인적 연단으로 자신을 이기고 승리한 조희성 이긴자

조희성님은 1980년 10월 15일 승리가 되셨고, 며칠 후 완성지를 거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다. 조희성님이 승리가 되기까지 걸어오신 발자취는 신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인내의 길이었다.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을 하시고, 자갈 위에서, 칼날같은 유리 위에서 30일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집중된 기도생활을 하셨으며, 자신의 마음이 죄의 마음인 것을 알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외에 어떠한 생각도 갖지 않는 생명을 내건 고도의 연단을 거쳐 완성자가 되셨던 것이다.

조희성님이 구세주가 되시자 박태선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 구원 받을 자격

자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이대로 끝내버리자고 하셨으나 조희성 이긴자께서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여 1981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여 1991년 백만승리제단을 건립하셨는데, “六十一歲成功時(육십일세성공시) 大廈千間建立(대하천간건립정)” 즉 61세가 되는 1991년에 천간이 되는 큰 제단을 설립한다(격암유록 갑을가는 예언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을 보이셨다.

조희성 이긴자께서는 백만제단에서 첫 예배를 보시는 자리에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린다고 하셨다. 이제 구세주를 배출하는 백만제단을 건립하였으니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일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었다. 백만제단은 의인을 키우는 곳이요 구세주를 배출하는 제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전까지 백만제단의 뜻은 백만 명의 신도들이 예배 볼 수 있는 제단으로 가운데 강대상(講臺)이 있고 그 주변으로 동글게 백만 명의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데 인공위성으로 생중계가 되는 그런 제



구세주 보광 직후 전국승사회의 때에 강하게 내린 이슬성신

단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분부제단이 백만제단이라고 선포하실 때에 다들 깜짝 놀랐다.

지금도 분신으로 역사하시는 구세주

지금 인류의 구세주이신 조희성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보좌로 돌아가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조희성님이 죽어 소멸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감로가 내려서는 안 되고 신도들에게 생수가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럴

지 않다. 지금도 계속 감로가 전국제단에서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성화사진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고 많은 신도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생수가 연결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희성님은 소멸되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모습으로 살아계심이 분명한 것이다.

조희성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조희성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구세주님께서는 누구이 자신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본체는 이긴자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격암유록에서는 정도령을 향하여 하나님이 땅에 내려 오신 분이라고 하여 천신하강분명(天神下降分明)하다고 예언되어 있고, 다나아가 무부지자정도령(無父之子正道令), 즉 육신의 아버지는 없다고 하여 정도령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예언하였다.

격암유록 성운론에 “감로여우보혜대사(甘露如寶惠大師) 정도령(正道靈)이 飛出(비출)하여 뇌성벽력전선신(雷聲霹靂電閃旋)에 일차이차재삼차(一次二次再三次)로 자하황무화연중(紫霞黃霧火燃中)에 구세주(救世主)가 강림(降臨)하니 ... 사망생초차시(死未生初此時)로 다 양래음퇴선운(陽來陰退仙運)에는 백보좌(白寶座)의 신판(神判)이라 비례물시비례물청(非禮勿視非禮勿聽) 행주좌와단정(行住坐臥端正)하소”라는 구절이 있다. “구세주 정도령은 뇌성벽력이 치며 번갯불이 빠르게 번쩍이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자쫓빛 놀 누린 안개 불타는 가운데 강림하신다. ... 이때는 죽음이

끝나고 영생이 시작되는 때로구나. 양의 시대가 오고 음의 시대가 가는 신선의 운의 시대에는 백보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이니 예(禮)에 어긋나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품행과 언행을 단정히 하라고 하고 있다.

구세주님은 지금도 5대공약을 행하고 계신다

조희성님은 1980년 10월 15일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거듭나신 후 인류의 죄를 대신 짚어낸 구세주가 되셨지만 인생들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5대공약을 하셨다. 즉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한국 땅에 여름 장마가 지지 않게 하겠다. 한국 땅으로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한국에 계속해서 풍년 들게 하겠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대로 지금까지 5대공약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다. -8면 5대공약 내용 참조

이긴자가 출현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하였으니 말세를 당하여 조희성 이긴자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분들은 참으로 복되다 하겠다.*

새로운 시대 新文化運動と哲学

地球村時代を生きている私たち人類は、コロナ19以後、新しい時代を切り開くための新しい暮らしの精神と文化、そして新しい生命哲学の必要性が急がれている。

人類が経験した伝染病のような大流行の疾病に関する深層的な分析とその原因を探って見ると、人間の間違った哲学と精神文化に起因するのがほとんどだ。筆者が研究してみた結果によると、大流行の伝染病や疾病が蔓延していた時期は、必ず互いに憎み合い、殺し合いをする「殺生文化」が多くの人間の心の中に蔓延した時に起こり、また過度で無分別な人間の利己的欲望と物質的享楽生活のための無慈悲的な自然生態系破壊と環境害損に起因する場合が多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の全ての結果は、人間の間違った価値観と未開の哲学に基附く思考方式、そして生命を軽視する文化から始まったものだと私は思う。もはや私たちは、これからは旧時代の弊習と文化を徹底的に投げ捨て、新しい時代に向けて新しい人生を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転換点に立っている。それでは、新時代とはどんな時代を意味し、どのように渡来するのか先ず探ってみよう。

新人類時代

新しい時代とは、衰退して病み死んでいく地球村の生命を生かし、万物と生態系とともに ' 相生共存 ' しようとする心の時代であり、生命を尊像する時代である。すなわち「Hanaism(一家)」と「一体=한몸(ハンモオム),One Body)」哲学を実践する新しい心を持った未来人類である「新人類」の時代を指す。天人のような神人類時代は排他主義的な考え方と集団利己主義に陥って互いに憎みながら殺し合いを為てきた死の「殺生文化」を消滅して、互いに助け合って隣人を愛することを我か兄弟と自分の身のように大切にする正しい精神と心に生まれ変わった新しい人間達が住む

世界、すなわち生命と愛が充滿して心温まる大同の太平時代を言う。そのような時代はコロナ19が終わる同時に將に全人類の目の前に当り来るだろう。

数千年前から数多くの先知者達と預言者が予告してきたその新時代と新文化運動は、20世紀後半から韓国で始まり、朝鮮半島を越えて世界各地で漸進的に起きている。このような新人類が出現して生命を生かす文化を、筆者は「生生文化」または「永生文化」と呼ぶことにする。上にも述べたように、もはや人類が共滅危機への道の末から共存共栄の道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ぬ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今の人類は、新しい心と更生した人間になって新時代を切り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使命感と時代精神が切実に必要であろう。このような新しい文化を創り出すためには、新たな価値観に立脚した新人類哲学が必要であり、又、死んでいく生命を生かせる新学問の出現は必須的要素である。

近い将来、人類が必ず学ぶべき新学問とは、まさに永遠な生命の海に導ける「生生文化」である「不老長生学」あるいは「永生学」になると見通すことができる。そして実践すべき新しい哲学とは、間違いなく新人類が主張している " 誰でも我がの身のように亦は自分と一つの体のように思う "、「一体(ハンモオム)哲学」に注目し、此は新時代を切り開くことができる代案的哲学になるだろうと同感する。筆者は世界新宗教運動の研究と人類の未来を研究する未来学者として、数十年間の韓国新人類文化の研究と哲学研究を通して、現世人類が直面している諸懸案問題と危機から抜け出す代案を 新人類の新文化と「人類が一つになる生命を生かし救う新文化運動」から見出した。

今号から連載される記事原稿の内容

は、1987年度後半にハンサンヨン様が韓国ソウルで出版した永遠の生命に関する新学問、「永生学」を参考にし、抜粋して纏めたものである。それでは、まず、ハンセンヨン氏の著書の序文を通して新時代の意味と新学問に関して探ってみよう。

序文

いま、巨大な宇宙の二つの波動がぶつかって、一つになり、新しい第三の宇宙が生成されつつある。東洋の精神文明と西洋の物質文明がぶつかり合いながら東西を一つにまとめる巨大な新しい波が誕生しつつある。それは、波動というより、生命の光である。新しい世界、新天地を開く明るい光なのである。

無知の日陰に累積していた新天地の舞台は、遮っていたカーテンを引き裂きながら、隠されていた燦然たる光線が眩しく輝きだした。

見よ！あなたの眼で確かめて見よ！老いたる肉体が若返り、死につつあった人生が永遠に生き続け、病気をすることもなくなった。

このような驚くべき不死永生の奇蹟が、いま現実には起きているのである。この新しい夜明けを告げる主人公たちの胸中には、善なる良心が花開き、かれらの手足からは忘れ去った若さが再び蘇生している。

この偉大な事実の前では、人類の凡ての歴史と、人間どもの凡ての学問は暫し終息せねばならない。そして、この新しい歴史の鼓動に耳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いま、凡ゆる宗教、凡ゆる学問では、この時点から新しく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眩しく輝く、永遠の生命の光の

前で！

生命の天光

元来、人間は永遠に生きることのできる存在であった。人間が死ぬのはその精神が間違って狂っているからであり、その狂っている精神を治せば人間は死なない存在に変わるようになるものだ。

なぜなら、人間の中には基になる本性の神が内在されており、元来、人間自体が神であったからである。

“はじめに生命である神があった。み言葉は神と共にあった。。。そしてこの命は人の光であった”(ヨハネによる福音書1の1～4節)

ヨハネ福音書にあるこの有名な文句からわかる通り、神はみ言葉であり生命である。従って、神とみ言葉が別にあるのではなく、神の言が即ち神であり、神が即ち生命であるのだ。われわれ人間が生きてことのできる生命エネルギーそれ自体が即ち神であるのだ。故に、生きている人生は凡て神の言で生きているのである。このことを証明する聖書の句は余りにも多いので列举するのもし煩わしいほどである。

このように最も聖書的な観点からみて、神は“死ぬ者の神”ではなく、“生きている生命”自体が正に神である。それにも関わらず、現在人々達は神様を死後、霊界において会う閻魔王の如き存在だとしているから困ったものと言わざるを得ない。

神と人間は同質性の存在である。水と水が合って一つになる如く、神と人間は一見、異質のものと思いがちだが、合って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る同質性の存在である。

聖書で、“神は自分のかたちに人を創造された”(創世記1 - 7)と言っているように、人間は神と同じような本質を持っており、人間を指して神の子、神の

息子と言っているから、人間と神は父と子の関係と同じである。故に、神の子が神になることは当然であり、動物になることはあり得ないのである。

神は空中や地の底にあるのではなく、人間の中にいますことを聖書も明らかにしているのだ。

“あなたがうち働きかけて、その願いを起こさせ、かつ実現に至らせるのは神であって…”(ピリピ人への手紙2)

“あなたの神、主はあなたのうちにいまし、…”(ゼバニヤ書3 - 7)

“わたしたちの内に宿っている聖霊によって守りなさい。”(テモテへの第二の手紙1 - 4)

このように、人間が即ち神であり、人間の中にいますかたが神である。にも拘らず、世の人々は神が天の空中にいて見えない存在だと言っている。そういうことで、かれらは書や天に向かい祈り、見えない存在に向かって願い事をならべているのである。だが、人に向かっては祈らないのだ。そして、自分自身の中に神がおり、また、悪魔も自分の心の中に存在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らずにいるのである。

「人間の肉体が死なない！」だれでもこの言葉には、まず疑問をもつことだろう。

それは至極、当然であろう。現に凡ての人が老いつつ、そして死んでいくからである。

しかし、だれかが老いと死に対する根本的な原因を究明し、その原因を除去することができれば既存の常識では想像すらできないだろうが、それは可能なことなのである。

ちょっときいただけでは、それは不可能な仮説にすぎないと思うことだろうが、いまあなたが手にしているこの本は、人間が死を忘れ、永遠に若さと喜悅のなかで暮らすことのできる秘訣を伝授するためのものなのであろう。

これは決して、仮想玄室的な理論で

はない。多くの人々が死の苦しみを戦い抜き、「死」そのものを克服した偉大な体験の記録であるからである。ある二、三人の素朴な信仰の結果を言うのではない、数多くの証拠と証人がおり、しかも科学的に充分な確証を得たうえに、この本が陽の目をみたのである。

いま、この「永生学」をいう純粋な学問によって、多くの老人が十年以上も若返るという、驚くべき現実が起きている。この新しい「生」への方法を実践する人々は、年齢を逆にと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過ぐる七年間、この本の内容(自由律法)を実践する数千名の人が、白髪が黒髪に、閉経十余年の老婆たちのメンス(月経)が再生するなど、奇蹟ともいえる現象が普遍的に現れている。しかも、このような神秘的な出来事が合理的に、秩序整然とした方法で行われているのである。

とくに驚くべきことは、これらの現象が、古今東西の各種の経典、また、予言書に提示されている内容と、あまりにも正確に符合しており、いままで解けなかった数々の謎と疑問が容易に解明されることである。

この、世にも不思議な真理を、どのように説明したら理解してもらえるだろうか？いささか気がかりである。

そこで、できるだけ客観的に納得のいく事実、否定しようにも否定できない科学的な事実を、理解しやすいように述べたつもりである。だが、この本を読み進めるうち、読者の関心は恐らく肉に関することよりも心に関し、物質に関することよりも精神に関し、その価値を見出すようになるだろう。

そして、結局には霊と肉とが別個のものではなく一つのものであり、万物は凡て神性をもっているということ悟るようになるだろう。そうなれば読者の皆さんは、すでに「永生学」の第一歩を踏み出したことになるのである。

一九八七年八月一八日　ハンサンヨンより*

Subaru Kan / 新人類文化研究所長

격암유록 新 해설 제105회

桃符神人 도부신인

弓弓乙乙修道人궁궁을수도인이 運去運來福還也 운가운래수환야니 天鷄籠 천계룡을 先覺後 선각후에 地鷄籠 지계룡은 再尋處 재심처라 天十勝 천십승을 先覺後선각후에 地十勝 지십승은 再尋地 재심지 天兩白 천양백을 先覺後 선각후에 地兩白 지양백은 後尋處 후심처라 天三龍 천삼룡을 先覺後 선각후에 地三龍 지삼룡은 後尋處 후심처 天弓弓 천궁궁을 先覺後 선각후에 地弓弓 지궁궁은 後尋處 후심처 天理田田先覺後 천리전전선각후에 地田田 지전전은 後尋處 후심처 天石井 천석정은 先覺後 선각후에 地石井 지석정은 後尋處 후심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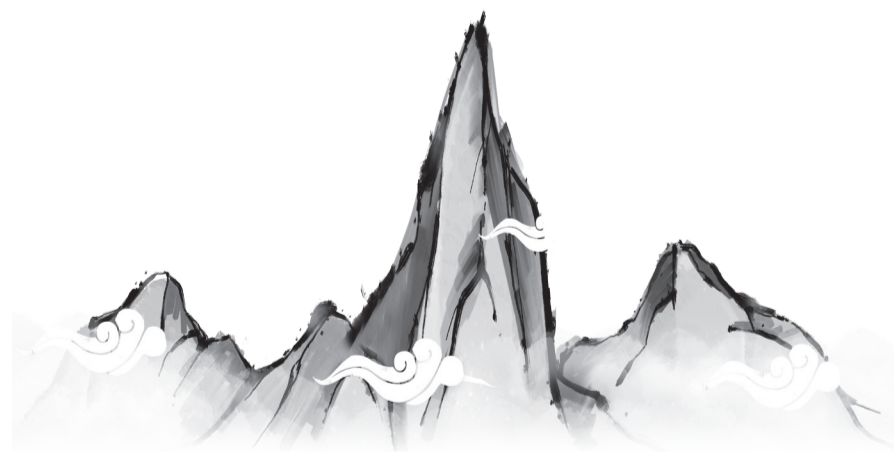
궁궁을을의 십승지도(十勝之道)를 닦는 사람이야. 운이 가고 오며 순환함에 따라 지귀(地鬼)의 운이 가고 천신(天神)의 운이 오느니 선후천이 가고 중천의 운이 오게 되느니라. 하늘의 계룡을 먼저 깨달은 후에 땅의 계룡을 다시 찾고 하늘의 십승을 먼저 깨달은 후 땅의 십승을 다시 찾

마귀는 흑십자요 하나님은 백십자이니라

으시오. 하늘의 양백(兩白)을 먼저 깨달은 후에 땅의 양백은 뒤에 찾을 것이요. 하늘의 삼풍(三豊)을 먼저 깨달은 후에 땅의 삼풍은 뒤에 찾을 것이요. 하늘의 궁궁을 먼저 깨달은 후에 땅의 궁궁은 뒤에 찾을 것이요. 하늘의 이치인 전전(田田)을 먼저 깨달은 후에 땅의 전전은 뒤에 찾을 것이요. 하늘의 석정(石井)을 먼저 깨달은 후에 땅의 석정은 뒤에 찾을 것이요.

天耕農 천경농은 先作後 선작후에 地耕農 지경농을 後作 후작하라 天農穀 천농곡은 不飢穀 불기곡이요 地農穀 지농곡은 飢死穀 아사곡요 天陽地陰 天寧 천양지음정녕커늘 鬼神陰陽不判 귀신음양불합갈 天金剛 천금강과 地金剛 지금강이 陰陽兩端 음양양단갈라있고 山金剛 산금강과 海金剛 해금강이 鬼神兩端 귀신양단갈라거든 一心修道弓弓人 일심수도궁궁인들이 十字陰陽判端 십자음양판단하소

하늘 농사를 먼저 지은 후에 땅의 농사는 뒤에 지을 것이요. 하늘 농사로 지은 곡식은 굶주리지 않는 곡식이요. 땅 농사로



지은 곡식은 마지막엔 굶어서 죽는 곡식이요. 하늘은 양, 땅은 음이 틀림없거늘 여찌하여 귀와 신, 음과 양을 판단하지 못하는가? 하늘의 금강과 땅의 금강이 음양으로 갈라져 있고 산금강과 해금강이 귀와 신으로 갈라져 있거늘 일심으로 십승의 도를 수도(修道)하는 궁궁인(弓弓人)들이여! 십자(十字)에도 음과 양이 있음을 잘 판단하시오.

天神地鬼分明 천신지귀분명하고 男尊女卑分明 남존여비분명커늘 天地理氣 천지리기엇지하여 反覆稱號 반복칭호뜻몰아노 神鬼 신귀라고아니하고 鬼神귀신이라 稱號칭호이요 外內 외내라고아니하고

內外 내외라고엇지하노 天地相爭混沌時 천지상쟁혼돈시에 天神負천신부이地鬼勝지귀승을 此然由 차연유로 因인하여서 勝利者 승리자의노름으로 天地反覆 천지반복할일업서 地上權 지상권을일엇디네 鬼神世上 귀신세상되였으니 神鬼 신귀라고할수업고 男陽女陰分明 남양여음분명치만 陰鬼發動此世故 음귀발동차세고로 男負女勝奪權 남부여승탈권으로 鬼勝神負 귀승신부할일업어 陽陰 양음이라못하고서 陰陽 음양으로되였으며 男外女內分明 남외여내분명치만

內外 내외라고 稱號 칭호로세

하늘은 양신(陽神)이며 땅은 음귀(陰鬼)임이 분명하고 남존(男尊)과 여비(女婢)가 분명하거늘 지천(地天)이 아니고 천지(天地)이며 기리(氣理)가 아니고 이기(理氣)임에도 칭호는 뒤집어서 부르는 뜻을 아는가? 신귀(神鬼)라고 아니하고 귀신(鬼神)이라 칭호하며 외내(外內)라고 아니하고 내외(內外)라고 어찌하는가? 천신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랑함이 실제록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에 태풍 못 온다

2020년에도 어김없이 지켜진 구세주 5대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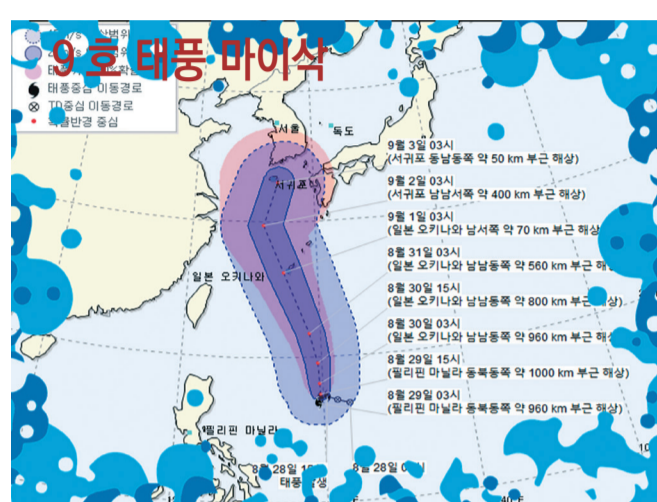
한반도 내륙을 관통한다고 했지만 전부 빗나간 태풍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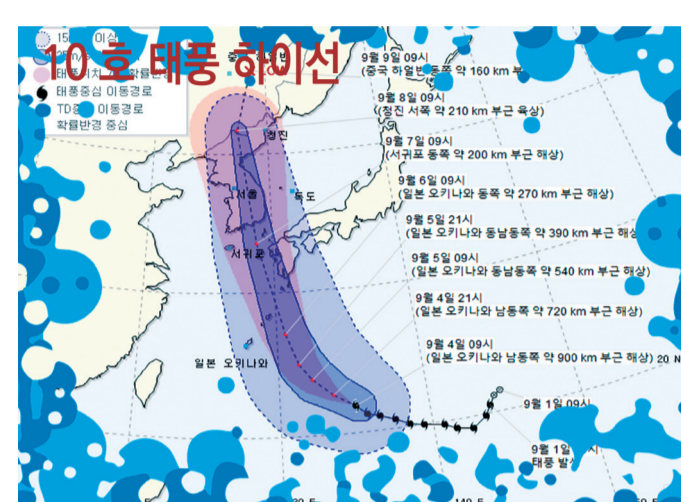
▲ 기상청 | 2020년 08월 02일 10시 00분 발표 제4호 태풍 하구핏(HAGUPIT) 예상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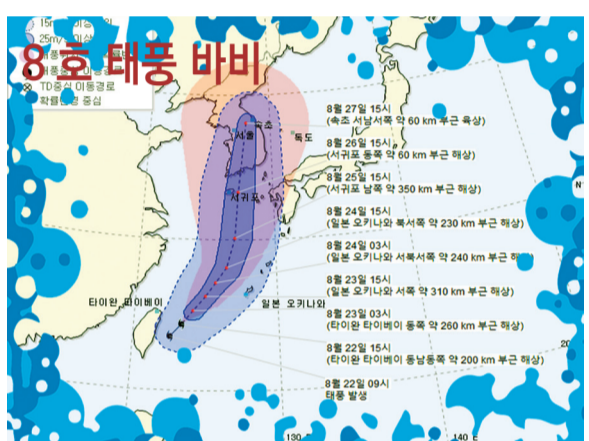
▲ 기상청 | 2020년 08월 10일 13시 00분 발표 제5호 태풍 장미(JANGMI)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8월 29일 04시 00분 발표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CK)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9월 04일 10시 00분 발표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예상 이동경로



▲ 기상청 | 2020년 08월 22일 16시 00분 발표 제8호 태풍 바비(BAVI) 예상 이동경로

이래도!!! 구세주의 능력을 못 믿는다면?

바보 멧렁구리!!!

- 공산주의 멸망 공약 1990년 성취
- 한국 연속 풍년 공약 해마다 실현
- 한국 여름장마 스톱 공약 매해 실천
- 한국전쟁 불가 공약 실천 중

Come & Check

구세주는 왜 태풍을 막아주는가

구세주께서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을 막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구세주라면 그 능력이 있어야 구세주라고 할 수 있지 아무 능력이 없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5가지 약속을 하였다. 5가지 약속은 이렇다. ①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② 한국에 태풍이 못 불어 오게 하겠다. ③ 한국에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④ 한국에 풍년들게 하겠다. ⑤ 남북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지금까지 이 약속은 모두 다 확실히 지켜지고 있다. 이걸 보아 조희성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처럼 태풍을 막는 것을 보면 누구라도 구세주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구세주 조희성님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 시절 배고픈 설움을 겪었다. 그런 개인적인 체험 또한 한국에 태풍이 불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벼가 자라 곡식이 여물 때나 여문

한국인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유

셋째, 구세주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다. 구세주가 출현했는데 그 구세주가 빈천한 국가 출신이라면 세계인들이 그 존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구세주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의 한 가지로 한국인을 굶주리지 않고 잘 사는 국민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셨다. 한국이 잘 사는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먼저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쌀이 풍부하게 생산되어야 하는데, 풍년은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기상조건, 일조량 등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걸 모르고 우연히 풍년이 든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참으로 미개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세주의 능력을 절대 허황된 말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증인들이 많이 있다. 부디 구세주 출현 소식을 기쁨으로 수용하여 영생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 세계 인류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구세주의 방주를 어서 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5695-897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횡성제단 : (045)489-9343
 신주제단 : (078)862-9522
 하關제단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신문

창간 정신
 명성대도의 실천
 명성학의 보급
 명성문화의 창달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788 호

The Seungni Shinmun

조희성 구세주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

“한국에 태풍 절대 못 불어온다”

어디 어김없이 구세주의 약속이다. 구세주는 1981년 한국 땅에 불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천다. 그 38년 전의 약속이 올해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적이다. 구세주가 아니라면 가이런 약속을 천명할 수 있는 약속을 보광하신 후에도 지킬



은 구세주께서 태풍의 눈에 들어가 엄청난 열을 발산시켜 태풍을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또 거운 공기는 상승한다는 물리법칙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전진하는 힘이 약화되어 태풍이 소멸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구세주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